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선한싸움 제목:믿음의 선한 싸움 성경:디모데전서 6장
11-16절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리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
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후6:11-16)

오직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만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싸움에는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이 있다. 싸움이라고 다 나
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는 척 할 때도 있고,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인류는 항상 전쟁을 하였다.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신속
하게 복구된다. (사람들이 온통 복구에만 매달리고 죄 짓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도 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주인들과 새로운 생각들
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분명히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결국 선한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우리를 안심시킨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세상에 벌어지더라도 전쟁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가장 선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는다.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악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악이 악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며, 선이 선한 이유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강하다는 것이다.

악이 성하면 결국에는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 악한 것은 생산도 못하고, 건설도 못하고, 생식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직 전염될 뿐이며, 선을 악으로 물들게 하고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선한편에 서고, 선을 지키고, 선으로 악에게 대항하고 물들지 아니하면 그는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싸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 말자. 현실적으로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스위스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현실적인 길인지 생각하자. 장로교가 최초로 꽃을 피운 나라 스위스. 대대로 전쟁 용병국가 스위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나라. 그 나라는 전체가 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무장 중립국이다. 그들은 결코 이단들이 부르짖는 무기 없는 평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은 무장하지 않으면 열강에 먹힐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되, 비현실적인 평화를 꿈꾸지는 말아야 한다.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때문에...) 평화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켜지는게 아니라,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여, 평화를 사랑하되 강한 자가 되어서 평화를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음으로 선한 것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마귀가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선한 것은 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나약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을 통해서 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지켜내지는 못한다. 평화는 오직 선하면서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켜진다. 그리고 선해야만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악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착각하거나, 선하면서도 강한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몸에도 나쁜 것을 투입하면 몸이 약해지고, 선한 것을 투입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므로 강해지기 위해서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단순히 마귀에게 속았을 뿐이다. 선한 것이 더 강하다고 확신하라!

그러므로 싸움을 싫어하지도 말고,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자. 그리고 선한 싸움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자. 어떻게 악한 것들을 공략할 것인가, 어떻게 거짓과 싸울 것인가? 무슨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를 궁리하자.

하나님은 전략가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전략가를 존중해야 한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악을 막아서고, 악을 소탕하고, 악을 두려워하지 말자. 악을 무시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자. 대신 선으로 악을 이겨낼 것을 궁리하자.

세상에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냐면 하나님은 선이 악을 이겨낼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고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마귀는 자기가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비열하고 악랄하게 거짓말과 더러움과 치사함을 이용한다. 정정 당당하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선한 사람들은 거짓말과 더러움과 치사함에는 치를 떨고 도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나온 말(전체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이런 표현이 있다.)은 ‘선한 증언’이라는 말이다.

선한싸움이란 ‘선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용기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할 때 악한 말이나 비판이나 비아냥이나 조소나 무시함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선한 증언’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악한 말이 난무할 때는 더욱 그렇다. 선한 사람들이 잠잠하면 앓된다. 선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한 증언을 해야한다.

흔히는 선한 증언을 악한 태도나 비판하는 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한 증언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선한 증언을 포기하지는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러 오신다. 세상을 바라보는 선한 눈.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딤후1:18)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4:7)

<찬양예배>

주제: 선한 싸움 제목: 전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144
편

1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 여호와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5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시라 연기를 내게 하소서

6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 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진대

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144:1-15)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전략을 여쭙어라

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20:18)

1절. 찬양을 통해서 전쟁할 것. 손과 손가락으로 하는 전쟁은 악기를 연주함으로 전쟁하는 것을 뜻함. -전쟁의 대부분이 심리전임을 명심하자.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전략을 다운로드 받았다.

-찬양이 찬양으로 그치면 앓됨.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연습하자.

2절. 하나님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고지를 확보하자. -전쟁에는 안전이 제일. 성에서 떠나면 위험.

5,6절.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을 보라. 엘리사처럼.

-영적 기상도를 살피라.

-엘리사는 전쟁하는 예언자.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보다 한 사람 엘리사가 하는 전쟁이 더 중하였다.

8절. 거짓과의 전쟁이다. 거짓 강함과 전쟁이다. 골리앗.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거짓 허세인지를 파악하는게 전쟁.

-도덕적 기준이나, 법률적 기준, 심지어 교리(마귀들도 이용하는 것들이기에)들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착념하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자. 진리 훈련, 말씀훈련.

**영적 전쟁의 지침

- 착한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
-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 보다는 개선 하려고 노력할 것
-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기 보다는 평판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될 것
- 부러워하지 말고 칭찬할 것 (부러워하면 지는 것, 칭찬하면 이기는 것)
- 비판을 받으면 웃어줄 것
- 시비에는 휘말리지 말되, 봉사활동에 힘쓸 것
-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철저히 싸울 것
- 친절, 온유, 믿음, 후덕함이 가장 건강한 전략임을 믿을 것
- 겸손히 잘못이나 실수를 시인하되,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거나, 약점으로 잡고 공격하려는 시도에는 용감하게 맞설 것.
- 치루어야 할 손해 배상에는 빨리 철저히 행하고 마귀가 그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선한 말과 자신의 선행을 증언함으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것. (선행을 자랑으로 삼으면 역효과. 그러나 사실을 밝혀서 여론이 나를 오해하도록 함은 지혜가 아니다. 여론전에서 밀리면 앓된다. 다윗은 결코 여론전에서 밀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사울을 살려 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선전하였다.)
- 선한 사람들끼리 연합하여 서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줄 것.
-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과 가정과 일터를 씻겨 낼 것.

